

관무재에서 관세사 자격증에 도전할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해 '관무재' 지도를 맡은 이지수 교수입니다. 저는 관세사 24기 시험을 치렀었고 올 해 여러분들이 관무재를 통해 38기 제 후배가 되시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세사 시험은 1차 3월 20일(토), 2차 6월 26일(토)에 치뤄집니다. 올 해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서둘러 관무재에 등록하시기를 권합니다. 1차 시험 합격만으로도 GTEP에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 취업 이력서에 강력한 한 줄이 됩니다.

오래전에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관세사 시험이 도전해볼만 하고 가치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2020년) 관세사 합격률은 23.8%로 예년에 비해 낮았지만 (2019년 29.89%, 약 30%) 여전히 국가고시 급 시험 중 높은 편이었습니다. 2020년 2차 합격률은 19.86%로 935명이 응시하여 149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만 보면 2차는 좀 어려운가 싶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과락자가 426명 이상이거든요 (상품학에서만). 다시말하자면 과락하지만 안는다면 합격률이 29% 정도 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셋 중 하나가 붙는다는 거죠. 어쩐지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관세사 시장이 포화되면서 관세사 자격증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관세사 자격증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한 자격증입니다. 개업만을 생각한다면 세간에 떠도는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관세사가 되면 법무법인, 회계법인은 물론 대기업, 다국적기업 어디든 우대하여 취업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관세사가 되고 2~3년 대형 관세법인에서 일하면서 일을 배워 전문성을 쌓고 원하는 자리로 전직하는 것이죠.

바로 원하는 자리에 취업하면 될 것을 꼭 관세사 공부처럼 어려운 길을 가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바쳐야 하지만, 충분히 가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보통 조직에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보장해주죠. 똑 같은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도 관세사인가에 따라 승진과 전직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14년 동안 관세사 업계에서 많은 관세사들이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성, 엘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수 많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 관세사들이 채용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본인만의 전문적인 경력을 만들어 가고 싶지 않나요?

관무재에서는 장학금과 학습경비 등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합격자는 대형 법인에서 수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나 좀 관세사에 적합한 것 같아'하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무재 문을 두드리십시오. 학점 좋은 사람 보다 용기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관무재에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관무재 접수방법

- 접수 기간: 1월 11일(월) ~ 1월 29일(금)
- 접수 방법: [관무재-지원] 학번_이름 12201401@dankook.ac.kr 로 이메일 접수
- 준비서류 : 입실지원서(첨부파일) + 자기소개서 (입사지원동기 및 관세사 1,2차 시험대비 계획서)-자유양식